

목숨 걸고 폐지 줍는 노인들



잇단 무단횡단 교통사고 무방비

광주서 폐지 주워 길 건너던

60대 남성 차에 치여 숨져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인들끼리 경쟁도 치열

강력한 제도·안전교육 등 필요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37가에서 한 노인이 자전거에 폐지를 싣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인들이 고물상이 주는 폐지 값에 따라 구청이 추가로 활동비를 주는 탓에, 폐지를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무작정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사정과 구청의 노인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1년에 2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과 수원, 청주 등 타지역은 폐지 줍는 노인의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찾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시는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노인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임에도, 지나친 온정주의에 강력한 제도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광주지방경찰청의 무단횡단 단속 건수만 봐도 2017년 2만 4881건에서 지난해 2702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올해 10월까지 267건으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노인 복지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교육·계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백승권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과장은 “노인의 경우 순발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복지예산을 늘려 길거리로 나오는 노인을 줄이고, 강력한 제도와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고속도로 문흥분기점서

4중 추돌사고…6명 부상

4일 오후 5시 20분께 호남고속도로 광주시 북구 문흥분기점(JC) 부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각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6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

사고는 호남고속도로와 광주 제2순환도로가 연결되는 상습 정체 구간에서 발생했다.

쏘렌토 차량이 정차해 있던 K7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하면서 앞의 쏘나타·아우디 차량까지 잇따라 사고가 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음주여부 확인 결과 적발된 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씨 강제 귀국 착수

경찰,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자 윤지오 씨를 강제 귀국시키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번안전과는 윤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관계부처를 통해 윤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윤씨에 대한 특별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윤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간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날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연합뉴스

BTS 정국 교통사고 조사

경찰 “음주운전은 아니다”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용산경찰은 BTS 멤버 정국(본명 정정국·22)이 지난날 서울시 용산구에서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택시 기사와 정국이 상체를 입었으며, 조만간 정국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국 측과 일정을 맞춰 경찰서에서 조사할 계획”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수 해상 22명 탄 낚싯배 좌초…인명피해는 없어

4일 오전 7시 20분께 여수시 대경도 서쪽 앞 해상에서 여수산적 9.77t급 낚싯배 A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으나 승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여수시 돌산 진두항에서 출항해 백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끝내고 임항 중 이던 이 선박에는 낚시꾼 20명과 선원 2명이 승선해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좌초 당시 목과 무릎 등을 다친 일부 낚시객을 구조장에 옮겨 태우고 돌산 진두항까지 이송했다. 이 배 선장 B

(40)씨는 음주 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배 밑바닥이 돌에 걸려 왼쪽으로 40도 기울어지고, 우측 배 뒤쪽 약 40cm x 1m 가량의 구멍이 생겼으나, 침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A호 연료밸브 차단과 에어벤트를 봉쇄하고 전복·침몰 등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고정작업도 실시했다. 해경은 선장과 승객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환 기자 chkim@

경찰청장 “법무부 공보준칙, 논란 없는 부분만 참고”

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보준칙을 마련해 논란 속에 경찰은 이 같은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민감통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끼리 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은 맞다”며 “수사기관(경찰·검찰)에 통일된 공보준칙이 적용돼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처

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훈령을 최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공보기준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 청장은 “법무부 안을 봤는데, 우리의 현재 공보준칙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라며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출입제한 조처 등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참고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것을 참고하자,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아 하루하루가 긴데 왜 굳이 논란을 끌어오겠느냐”고 답했다.

/연합뉴스

동료와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경찰관 조사 받는다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풍문 정도로만 알려졌다 사건이 일진 부인 규명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관련 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수칙이라는 부분이라는 점”이라며 “다 많은 의혹이 없도록 엄격한 조처를 갖고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포한 내용은 사진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그 영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성관계 영상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A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조만간 피의사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관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SNS에 유포돼 퍼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아이유 광주 콘서트 생중계한 20대 2명 ‘경찰서형’



○·광주에서 열린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6) 콘서트 현장에서 미공개 음원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생중계한 20대 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형.

○·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의 A·B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광주 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2019 IU 콘서트 Love, Poem'에서 사전

공개된 미공개 음원을 30분간 실시간 송출하다가, 관객들의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선 현장요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아이유의 소속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고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구매 7개> *매각도: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 5473	1	서구 시청로 13, 5층 522호 [치평동, 상무리]	아파트	77,00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5855	1	광산구 도산동 1298-3 삼라극동아파트 101동 7층 708호 39.69㎡	아파트	82,00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7172	1	동구 소태길 16, 7층 705호 [소태동, 연계이]	아파트	150,00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7936	1	나주시 남평읍 관변2길20, 104동 11층 1104호 [메스디렉스칸충무하리]	아파트	194,00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8007	1	북구 설곡로370번길7, 101동 2층 205호 [설곡동, 호반아파트]	아파트	83,00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8212	1	북구 두암동 456-1 예향 1층 102호 65.76㎡	아파트	92,00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8472	1	북구 양방동대로 1020, 202동 4층 401호 [신용동, 칠탄리2차]	아파트	330,00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9타경 4128	1	북구 오지동 965-5 116.5㎡ 대	대	116,661,2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63189	1	북구 서화로 278-3 1층67.80㎡ 2층58.02㎡ 부속건물 1층 1㎡ 제시외 부속, 가주 12㎡ 정성근 북이문 죽천리 355 400㎡ [정수현지분3분의1전부]	단독주택	18,896,47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67068	1	남구 박문로 599-25 194.9㎡ [임신동지분9/54전부]	단독주택	42,312,2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9타경 4234	1	서구 화정로49번길38, 3층 303호 [쌍촌동, 다세대]	다세대	63,00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 7097	1	양양군 무정면 성도리 633-3 301㎡ 대	대	27,090,000	토지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7479	1	창성군 장성읍 용강리 449 1593㎡ 전	전	3,500,000	토지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7813	1	서구 화정동 368-102 542㎡ 대	대	147,424,000	토지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9타경 9192	1	정성군 삼서면 두랄리 47-7 3000㎡ [이월한지분4분의1전부,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답	16,350,000	토지취득차적증명요, 현황전으로이음
2019타경 62636	2	광산구 삼가동 199 836㎡ [오재교지분234분의14전부,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전	1,872,000	토지취득차적증명요
2019타경 66171	1	동소 208 281㎡ 동소 209 195㎡ 제시외 관정 골유지분 대	전	2,942,000	일괄매각, 토지매각, 제시외건물매각제외, 제시외관정포함
2019타경 66256	1	동소 209-1 17㎡ [물건번호2: 오재교지분234분의14전부,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도로	2,942,000	일괄매각, 토지매각, 제시외건물매각제외, 제시외관정포함
2019타경 66379	3	동소 363-2 112㎡ 동소 363-3 76㎡ 동소 363-5 10㎡ [물건번호3: 오재교지분234분의14전부]	구거도로	247,800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19타경 67471	1	나주시 산포면 동성리 918-4 2251㎡ [매각제외원테이너박스1기있음]	전	299,132,000	토지취득차적증명요
2019타경 67646	1	정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39 14678㎡ [박기환지분11분의2전부, 영고미상분묘소재]	임야	59,634,3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19타경 66379	1	북구 정동동 산185-1 14986㎡ [현황일부전으로이음]	임야	389,636,000	연고미상분묘소재
2019타경 67424	1	동구 문림동 산15-9 595㎡ 전	임야	11,900,000	지적도상행지임
2019타경 67471	1	화순군 동북면 읍내리 산176 11405㎡ 전	임야	13,686,000	맹지임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8타경 17393	1	서구 능동동 166-7 갈하빌딩가동 1층144.6㎡ [사무소] 2층144.64㎡ [학원] 3-4층각14.64㎡ [사무소] 5층98㎡ [학원] 제시외 주대 23.3㎡ [건물만매각, 제시외건물포함, 소유자들건물에 대한 건물청가및 토지인도소속에서매수함]	근린시설	555,417,600	보내건건물은현황
2019타경 7646	1	서구 능동동 166-7 갈하빌딩가동 1층144.6㎡ [사무소] 2층144.64㎡ [학원] 3-4층각14.64㎡ [사무소] 5층98㎡ [학원] 제시외 주대 23.3㎡ [건물만매각, 제시외건물포함, 소유자들건물에 대한 건물청가및 토지인도소속에서매수함]	상가	555,417,600	상가수용성질631-4번지외왕지상에소재한, 일반건축물대장제외일반건축물등채용
2019타경 4517	1	남구 봉선동 610-1 봉선동대화아파트 상가	생활시설	69,000,000	
2019타경 8748	1	서구 능동동 166-7 갈하빌딩가동 1층144.6㎡ [사무소] 2층144.64㎡ [학원] 3-4층각14.64㎡ [사무소] 5층98㎡ [학원] 제시외 주대 23.3㎡ [건물만매각, 제시외건물포함, 소유자들건물에 대한 건물청가및 토지인도소속에서매수함]	상가	555,417,600	보내건건물은현황
2019타경 9994	1	서구 능동동 166-7 갈하빌딩가동 1층144.6㎡ [사무소] 2층144.64㎡ [학원] 3-4층각14.64㎡ [사무소] 5층98㎡ [학원] 제시외 주대 23.3㎡ [건물만매각, 제시외건물포함, 소유자들건물에 대한 건물청가및 토지인도소속에서매수함]	상가	555,417,600	상가수용성질631-4번지외왕지상에소재한, 일반건축물대장제외일반건축물등채용
2019타경 65215	1	서구 능동동 166-7 갈하빌딩가동 1층144.6㎡ [사무소] 2층144.64㎡ [학원] 3-4층각14.64㎡ [사무소] 5층98㎡ [학원] 제시외 주대 23.3㎡ [건물만매각, 제시외건물포함, 소유자들건물에 대한 건물청가및 토지인도소속에서매수함]	상가	555,417,600	상가수용성질631-4번지외왕지상에소재한, 일반건축물대장제외일반건축물등채용
2019타경 65666	1	서구 능동동 166-7 갈하빌딩가동 1층144.6㎡ [사무소] 2층144.64㎡ [학원] 3-4층각14.64㎡ [사무소] 5층98㎡ [학원] 제시외 주대 23.3㎡ [건물만매각, 제시외건물포함, 소유자들건물에 대한 건물청가및 토지인도소속에서매수함]	상가	555,417,600	상가수용성질631-4번지외왕지상에소재한, 일반건축물대장제외일반건축물등채용
2019타경 69224	1	서구 능동동 166-7 갈하빌딩가동 1층144.6㎡ [사무소] 2층144.64㎡ [학원] 3-4층각14.64㎡ [사무소] 5층98㎡ [학원] 제시외 주대 23.3㎡ [건물만매각, 제시외건물포함, 소유자들건물에 대한 건물청가및 토지인도소속에서매수함]	상가	555,417,600	상가수용성질631-4번지외왕지상에소재한, 일반건축물대장제외일반건축물등채용

2019. 11. 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상의